장 백 산 천 지

제 103 호 2008 년 9 월 19 일 금요일

중국 공산당의 사교특성은 무엇인가? (련재 3)

중국 공산당은 일면 『헌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고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어떤 조직과 개인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이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반면 『당장(黨章)』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지도 핵심이다."

이것은 바로 당의 위치가 국가와 인민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도처에서 '중요 강화(講話)'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당의령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민주 집중제' 원칙에 따르면 전당(全黨)은 중앙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말하자면 사실상 인민대표대회가 견지하고자 하는 것은 공산당 '일당 독재'이며 립법(立法)의 형식을 통해 공산당 '일당 독재'를 보장하는데 있다.

(3) 폭력 세뇌, 정신 통제, 엄밀한 조직, 탈퇴불가

공산당 조직은 아주 엄밀하다. 새로운 당원을 받들일 때는 2명 이상의 소개자가 있어야 하며, 입당(入黨) 시에는 영원히 당에 충성을 바칠 것을 맹세해야 한다. 또 당원은 일정한 당비를 내야 하며, 이밖에 조직생활에 참여해야 하고 단체 정치학습도 해야 한다. 공산당 조직은 각급 정부 부서에 모두 존재한다. 모든 향,진,촌,생산대와 도시의 가도,사회구역.각 사업단위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공산당 기층조직이 있다. 당은 당원(黨員)과 당무(黨務)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비당원도 그들의 통제 범위에 포함한다. 이것은 전체 정권이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체현하기 위해서이다. 그 밖에 공산당이라는 교회의 '신부(神父)'—즉 각급 당조직의 서기는, 대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전문으로 해 온 자들이다.

공산당 생활회에서 '비평과 자아비평'이란, 이런 형식은 당원에 대한 장기적인 정신통제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공산당은 력사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청당(淸黨)', '정풍(整風)', '반역자 잡기', 'AB단 학살', '정당(整黨)' 등의 방식으로 주기적인 폭력테러를 리용하여 당원의 '당성(黨性)'을 배양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원히 당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산당에 입당(入黨)하는 것은 몸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법(國法) 위에 당의 기률[黨紀]이라는 공산당의 가법(家法)이 있다. 당은 당원 개인을 제명할 수 있으나 제명당한 당원은 당을 이탈했다는 리유로 부득불 심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만약 탈당하려고 하면 반역이라는 죄명을 쓰게 된다. 더 심한 것은, 공산 사교가 중국천하를 통일했던 문화대혁명시기에, 당이 죽음을 요구하면 살아남지 못했으며 당이 살 것을 요구하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다. 만약 자살을 시도한다면 '스스로 인민과 단절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족들까지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당내의 정책 결정은 암암리에 진행되며, 당내 권력투쟁 상황은 절대적인 비밀이고, 당이 내린 공문(公文)은 국가기밀이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외부에 폭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공산당은 종종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국가기밀 누설죄'라는 명목으로 처벌한다. **("9평"에서 발췌)**

인끼를 끈 파룬궁채색차



지난 8월31일에 거행된 폴란드 바르샤바 다양문화절 대시위행진중에서 파룬궁채색차가 제일 인기를 끌었다. 차위에 황색련공복을 입은 파룬궁학원들이 5조공법을 전시했고 차 앞뒤에 늘어선 무용대와 요고대의 정채로운 연출은 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의학사상에서 전례없는 기적

흑룡강성 5상시 모 촌 한 대법제자의 아들 춘뢰는 금년 8월8일 점심때 모터찌클을 타고 외출했다가 마주 달려오는 한 모터찌클과 맞부딪쳤다. 춘뢰는 기혼하여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온 얼굴은 피투성이 되였고 모터찌클은 박살났다.

춘뢰가 시립병원에 가서 CT를 검사해보니 두개골과 관골은 여러곳이나 골절되였고 뇌속엔 3곳이나 어혈이 져 있었다. 의사는 《24시간내에 깨여날수 있다면 두개골을 수술하여 생명을 구원할수 있다.》고 말했다. 30시간 지나서야 춘뢰는 깨여났다. 간호하던 춘뢰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다급히 말했다.《파룬궁이 좋다. '쩐싼런'이 좋다. 라고 진심으로 묵념하라.》춘뢰는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묵념했다.

이튿날, 재검사해보니 춘뢰의 머리속에 어혈이 보이지 않았다. 더욱 신기한 것은 골절된 관골을 용모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입을 벌리고 밥을 먹을수 있었고 말할수 있었다. 이것은 의학상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외과주임의사는 믿어지지 않아서 머리를 저으며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가능할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춘뢰는 웃으며 마음속으로 《대법사 부님께서 나에게 두번째 생명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춘뢰는 열흘만에 건강이 회복되여 퇴원했다. 외과의 사들은 저마다 《이것은 의학사상에서 전례없는 기적입니다.》라고 말했다.

류리걸식하고 있는장애인 올림픽금메달수상자 장경원

무한시에 살고 있는 장경원(张庆元)은 어렸을때 왼팔를 못쓰게 되였다.

장경원은 1994년 제4차 원동 및 남태평양지구장애인운동회에서 남자조 3단뛰기 1등을 하고 세계기록을 돌파했다.

. 2001년11월5일, 장경원은 무한시공안국 악경에게 체포되여 무한시제2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다가 한달후에 무한시강한구2도붕쇠뇌반에 압송되였다. 악경들은 장경원을 자지 못하게 하고 오랫동안 벽을 맞대고 서있게 했다.

2005년7월9일, 장경원은 또 무한시공안국 악경들에게 랍치하여 무한시제2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았다. 장경원은 불법박해에 항거하여 단식투쟁을 했다. 악경들은 손가락만큼 굵은 파이프를 코구멍으로부터 위까지 꽂아넣고 억지로 음식물을 주입시켰다. 파이프을 꺼낼 때마다 온통 피가 묻어나왔다.

2006년4월5일 청명절날에 장경원은 또다시 무한시공안국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무한제2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았다.

2006년6월1일, 무한시중급법원에서 장경원의 집에 찾아와서 유기도형4년판결서를 내놓으며 죄없는 장경원더러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서명하지않은 장경원은 핍박에 못이겨 집을 떠나 지금까지 류리걸식하고 있다.



그림 **쩐싼런국제미술전람작품**

순진한 부름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제지시키기 위해 해외 파룬궁학원들은 세계 방방곳곳에서 혹형전람,전단지 배포,전시판들기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박해진상을 알리고 있다.



그림속의 소녀는 비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세인들을 부르고 있다. 그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여 량지를 환기시키고 하루속히 박해를 정지시킬 것을 바라고 있다.